

# 내장산서 캠핑하며 가을 정취 만끽

### 정읍시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 14·28일 '캠핑페스타' 개최 공연·농특산물 부스·체험 등 다채



정읍시가 정읍의 맛과 멋, 향을 알리는 캠핑페스타를 개최하는 등 관광자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 내 내장산 문화광장 내 국민여가캠핑장에서 진행되는 캠핑페스타.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정읍의 맛과 멋, 향을 알리는 캠핑페스타를 개최하는 등 관광자원 활성화에 나섰다. 정읍시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이 내장산 문화광장 내 국민여가캠핑장을 찾는 캠핑객들을 대상으로 정읍을 알리는 가을밤 행사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은 지난 7일과 8일에 이어 14일과 28일에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정읍시의 농촌지역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신활력 사업 일환으로 차별화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구절초 슬라이드 체험과 캘리그라피 손수건 체험, 버스킹 공연·기타 연주, 농특산물 홍보부스 등이다.

또 가을 밤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참가자 즉석 이벤트 행사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지난 9일 아름다운 가을정취를 느끼고 농촌문화를 체험하는 '농뚜레일' 기자여행을 운영했다.

이번 '샘고을 정읍, 샘나는 여행' 농뚜레일 관광

객 25명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사이트 '팻츠코레일'을 통해 모집했다.

이들은 먼저 농촌체험농장 '알로에사랑'에서 알로에로 만든 웰컴티를 시용하고, 알로에 보습제를 직접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또 구절초 꽃축제 현장을 방문해 꽃길을 거닐며 최고의 가을 정서를 만끽했다. 다양한 전시부스를

관람하고 농특산물을 구입하는 시간도 가졌다.

유기오 정읍시 농업정책과장은 "캠핑페스타 등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읍의 맛, 멋, 향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고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복지부 장관상'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프로 호평

고창군이 군민들에게 우수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했던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2023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행사는 10월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 우수사례를 발굴해 정신건강 사업을 활성화하고 정신건강 증진에 공헌한 유공자의 공적을 치하하고자 마련됐다.

고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표현 부족, 사회성 저하, 미디어 과몰입 등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해소

하고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동아리 '마음생명탐험'을 운영했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는 고창교육지원청, 고창군드림스타트, 고창초등학교, 고창중학교, 자유중학교와 연계해 모집했다.

이후 고창읍성, 도예체험장, 문수사, 심드림, 덕화체리농원, 동리시네마, 상하농원 등 지역사회 다양한 문화생태자원과 치유농업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평가에서도 아동·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서적 균형을 위한 기회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원광대병원 "간호부 새 100년 향해 도약"



### 미션·비전 선포식 개최

원광대학교병원은 12일 '원광대학교병원 간호부 미션·비전 선포식'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원광대병원 외래1관 대강당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오도철 원광학원 상임이사, 서일영 원광대병원장, 신은숙 전북도 간호사회장, 함선희 전북도 병원간호사회장, 김정희 전북대학교병원 간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공 직원 병원장 표창과 심폐소생술(CPCR) 대차 상황극, 비전 선포·실천 결의 등이 진행됐다.

간호사에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영상도 상영됐다.

원광대병원 간호부는 이날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간호를 제공해 제생의세(濟生濟世)를 구현한다'는 임무 아래 '간호100년'을 향한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환자 간호를 최우선으로 실천하는 간호부 ▲미래 표준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간호부 ▲상호 존중하며 배려하는 간호부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간호부 등을 내걸었다.

이안장 간호부장은 "새로운 미션·비전을 통해 원광대병원 간호부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라며 "최상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에너지엔, 독일 발전소 2곳 90억 설비 사업 수주

### 군산 자유무역지구 입주 기업...복수기·지역난방 열교환기 공급

군산 자유무역지구에 자리한 원자력·가스·화력 발전플랜트 설비 제작업체가 독일 발전소 2곳으로 부터 90억원 규모의 가스 터빈 및 주요 설비를 공급하는 사업을 수주했다.

에너지엔(대표이사 박춘배)은 "독일 남부 하이블론과 알트바흐-데이지사우 복합 사이클 가스터빈 발전소(CCGT·Combined Cycle Gas Turbine)에 복수기와 지역난방 열교환기 공급사업을 수주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주금액은 90억원에 이른다. 복수기(Surface Condenser)는 발전소 가스터빈에서 배출된 증기를 다시 물로 응축시켜

회수하는 발전소의 필수설비이다.

독일 에너지 그룹 EnBW는 현재 남부 슈투트가르트에 운영중인 하이블론 발전소와 알트바흐-데이지사우 발전소 내에 이산화탄소 방출 감소와 기후 중립을 목표로 복합 사이클 가스터빈 발전소(680MW 출력 규모)를 신설, 오는 2026년에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춘배 대표는 "독일의 경우 최상의 품질을 추구해 기술과 코드 요구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데 저희 제품이 그 모든 기술 조건을 만족하기에 채택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동안의 세계 유수 발전설

비기업에 제품을 공급한 경험을 토대로 세계 최고의 품질로 지속 성장하는 회사로 발전시켜나갈 것"고 말했다.

한편 1995년 설립된 에너지엔은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내외 발전플랜트에 열교환기와 터빈 발전기 부품 등을 공급해 오고 있는 발전설비 전문기업이다. 특히 GE와 SIE-MENS 등 글로벌 기업군에 다양한 설비를 납품해 매출의 80%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GE Vernova(GE 에너지부문 기업)로부터 2018년 최우수 파트너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다시 수상할 정도로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군산=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고창군, 강남천 지방하천 정비 주민설명회

### 16일까지 아산·무장면 9개 마을

고창군이 354억7300만원의 예산이 투입해 강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한다.

고창군은 '강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앞서 오는 16일까지 아산면 4개 마을과 무장면 5개 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26년까지 총사업비 354억7300만원을 투입해 무장면 강남리부터

아산면 주진리 주진천 합류점까지 3.3km의 하천을 정비하고 9개의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이다.

이광수 고창군 안전총괄과장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세부 설명 및 공사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이해와 의견수렴, 편익토지 보상 협조 등을 부탁할 예정"이라며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남원시-라오스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남원시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남원시는 지난 11일 라오스 비엔티안 노동사회복지부에서 남원의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부의

아누손 캄심사왓 국장, 수간 분용 루앙프라방 시장을 비롯해 남원시 농정과장,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백남정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라오스 루앙프라방 시는 우수 인력 선발과 적응 훈련 등을 지원하고 남원시는 선발 인력을 배치해 농가 일손부족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외국인계절근로

자의 국내 입국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부에서는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관리 체계 구축을 약속하기도 했다. 남원시에서도 라오스 계절근로자가 남원의 농촌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남원시는 지난 2021년 몽골 달란자가드군, 2022년 몽골 세르켄렐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